



<이미지 읽기>로.....

사람을 읽고

세계를 읽고

오늘을 읽는다!

영국사랑 24회 열린강좌이고

저희 Rp' Institute의 오픈 강좌로

101회기념 강좌의 주제는

<이미지 읽기>입니다.

본 강좌는 지난 23회 열린강좌에서 제시된

날개달린 몸통을 만드는 눈의

그 방법론이기도 합니다.

올바른 이미지 읽는 방법으로

늘 만나고 대면하는 사람을 읽고

또 우리가 사는 세계를 읽고

늘 흘러가는 시간 속에

정확한 오늘을 읽는 법을 강의하는 시간입니다.

이미지 읽기란

사실 낯 선 것이나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.

한국이나 동양에서 사람을 읽는 방법으로

<관상학>이 있고

서양에서도 나름대로 축척한 경험과 이론으로

세워진 <행동이미지학>이란

것이 있습니다.

영국과 미국, 특히 FBI등 전문 수사관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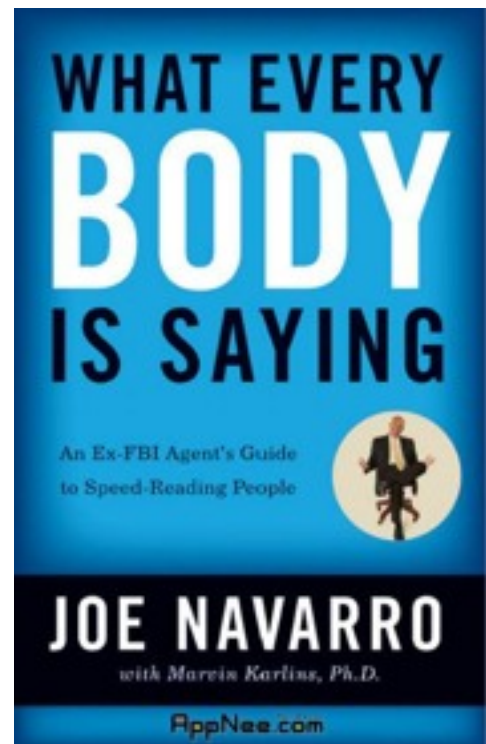
교육하는 기관에선 기본적인 얼굴과 행동을 읽어내고

판단하는 <행동이미지학>이 있습니다.

아래의 세계적으로 번역된

<이미지 읽기>책인 What Everybody is Saying은

FBI 교재로도 사용되는 저서입니다.



Dissecting the Face



그러나 이 저자의 이미지 읽기로는
<지금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
는가??

<어떤 상황인가?> 행동적이고 즉
각적인

현상만을 읽어내는 지극히

임시 방편적인 방법으로 흔히 부모
님들이나

교사들이 학생이나 자녀들을

판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에 지
나지 않습니다.

즉 사람의 기본적 성격이나 취향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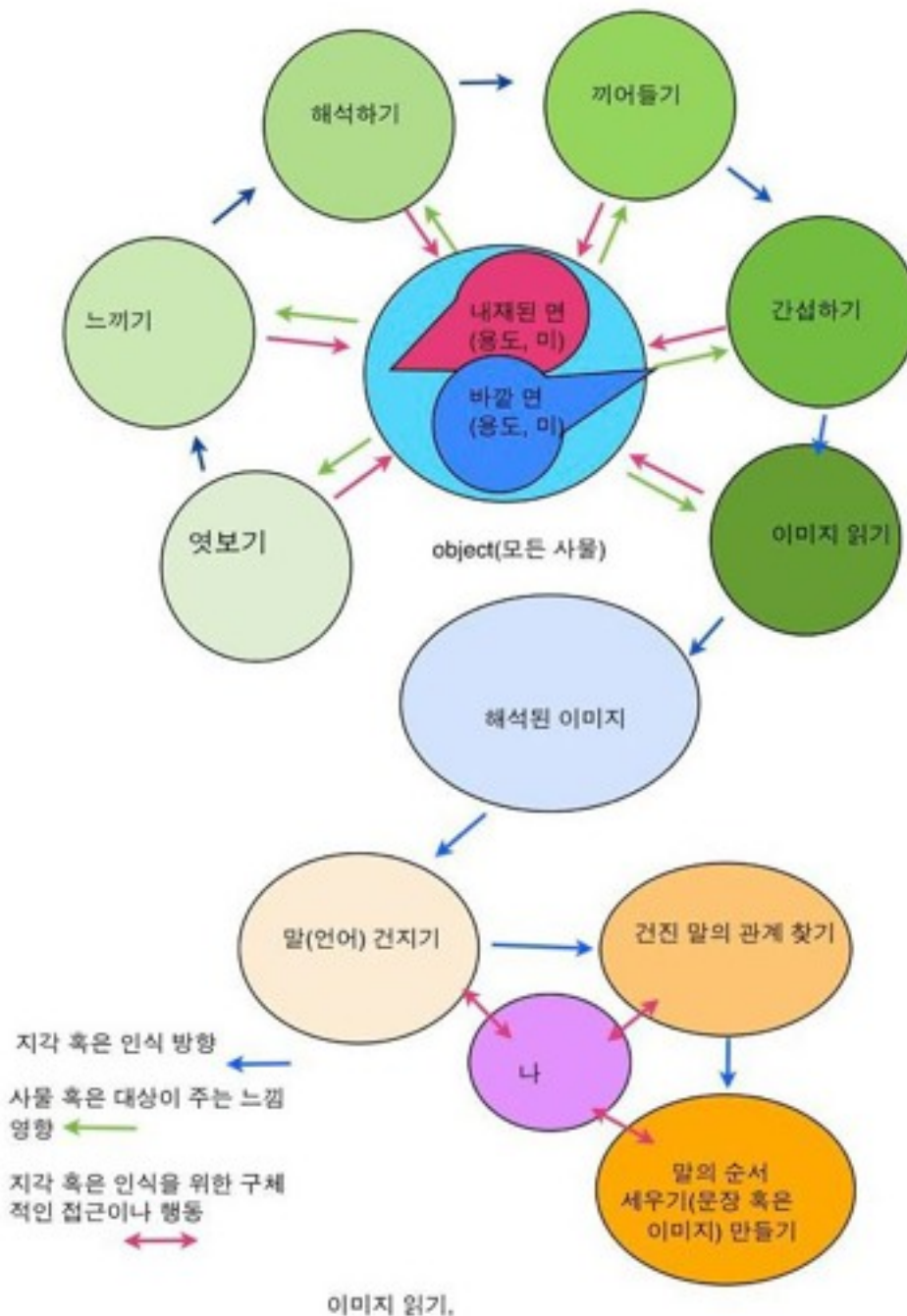
취미 등을 읽어낼 수는 없고

단지 표정만을 통해 그 때의 기분



이나 진실여부만을 판단할 수 있을 뿐입니다.
또 같은 문화와 역사 환경 속에서 산 사람만을
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지 다른 환경 속에서 성장한 표정읽기는
곤란하다는 사실입니다.

그러나 저희 Rp' Institute에선
오래전부터 이미지 읽기를
통해 같은 문화와 역사를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
전 세계인을 읽을 수 있는
안목뿐만 아니라....
오늘날의 세계와 문화현상, 시사등을 읽어내는
능력을 기르는 방법을
미술작품과 역사적 유물을 통한
<이미지 읽기>로 교육을 시켜왔습니다.



이 옆의 그림과 같
이 모든 눈으로 볼
수 있는 대상들
(사람, 사물, 작품,
영상이미지, 텍스
트, 광고미디어,
사회디자인 등등)
을 하나의 사물
(object)로 보고
..... 드러난
바깥면을 통하여
내부에 내재된 숨
은 이미지를 드러
내는 작업입니다.

아래 그림과 같은
옛보기부터 시작
하여 이미지 읽기
로 그 과정이 끝납
니다.

그러나 중요한 것
은 **이미지읽기**를
거친 후,
창조산업자(이미
지를 만드는 사람)
은 **해석된 이미지**
를 건져...그것으
로 다시 **언어를 건**
지고 즉 말을 만든



후, 다시 창조적이고 개성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기초자질을 갖추는 것입니다.
모든 생산적인 이미지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.



공간과 시대를 초월한 눈이란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를 해석할 수 있는 눈으로 바로 날개달린 눈을 의미합니다.

이 날개달린 눈의 몸통을 다는 방법이 바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그 이미지를 자유롭게 읽고 해석하는 이해력과 추리력입니다.

좁아진 세계 촌에서 다른 나라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국제적인 능력을 가장 빨리 효과적으로 키울 수 있는

방법이 세계의 다양한 미술(역사적으로 인정받고 고증이 된 유물과 작품)을 통하여 이미지 읽기 훈련을 하는 방법입니다.



그것이 가능한 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미지로 만들어진 미술은 각시대, 각지역, 수많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 담겨져 있고, 인증되고 고증된 자료로 이것을 드러내며 역사와 철학, 인문학과 과학, 심리학, 사회학적 접근 등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입니다.

저희 Rp' Institute의 교육이 특별한 것은 바로 이같은 접근방법 때문입니다.

페이스북/<https://www.facebook.com/RPInstitute?ref=hl>